

# TV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인식의 변화추이와 관련 결정요인들에 대한 고찰

이희진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 The Change of Married People's Perception of the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 and Related Determinants

Hee-Jin Lee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Handong Glob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추이를 탐색하고, 관련 요인들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4년의 간격을 두고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1차(2015): 402명; 2차(2019):604명)를 통해 얻었다.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기혼자들의 비율(1차, 67%; 2차, 47%)은 감소하였다.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감소하였지만, 혼인가치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문제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간통죄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는 인식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연령과 자기지각력은 높을수록, SNS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식할수록,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지는 현상은 1차, 2차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에서는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을수록,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일수록,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높은 현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기혼자들이 혼외성에 대해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불륜을 소재로 한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생각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erceptions of married individuals regarding the adverse effects of TV dramas based on extramarital affairs are changing over time and identified the associated factors. Data were obtained from two surveys of married people (first survey in 2015: 402 people; second in 2019: 604 people) conducted over a four-year interval.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married individuals who questioned the dysfunctional aspects of TV affair drama decreased from 67% in the first survey to 47% in the second survey. The concerns about 'excessive romanticization of infidelity' and 'explicit sexual depictions' decreased,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cern about 'damage to marital values.' There was a tendency to be less concerned about extramarital affairs,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abolishing adultery laws was a correct decision. In both surveys, the higher the age and self-perception of married people, the more they perceived the adverse effects of SNS, and the more they were aware of the dysfunction of the TV affair drama. The second survey found that more emotional isolation led to more acceptance of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re individuals who disagreed with the abolition of adultery laws. Furthermore, the more they identified as Christians, the higher their awareness of the dysfunction of the infidelity TV drama. Therefore, married people are becoming less critical of extramarital sex, and their thoughts on the dysfunction of TV adultery drama content based on infidelity are also changing due to various factors.

**Keywords** : Extra-Marital Relationship, Adverse Effect of Affair Drama, Emotional Isolation, Self-Awareness, Marit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ee-Jin Lee(Handong Global Univ.)

email: hjlee@handong.edu

Received March 25, 2024

Accepted June 7, 2024

Revised May 13, 2024

Published June 30,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기혼자들의 불륜(infidelity)은 혼인가치를 훼손하는 탈규범적인 행위이다[1]. 하지만 ‘불륜’은 TV 드라마에서 매우 인기 있는 소재로 다루어져왔고, 불륜이라는 소재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비극적인 특성이 있기에 극적 소재로서 매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2-4]. 많은 불륜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어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지만 [5,6],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1,5,6]. ‘자극적인 성적 묘사’ 뿐 만 아니라, 불륜 드라마에서 ‘불륜을 지나치게 낭만화’시켜 불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게 하고 ‘불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1,5,6]. 불륜 드라마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social dysfunction)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관련 학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특히 기혼자들의 혼외성(extra-marital sex)에 대한 인식 및 규범을 형성하게 하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의 동인(agent)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중매체(mass media)이다[6]. 불륜 드라마에 대한 인식과 혼외관계인식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와[5],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실제로 혼외 성행위를 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하고 불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7]. 기혼 남녀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혼외성과 같은 일탈적 성행위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혼 남녀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한 소수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의 심리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5,6].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규범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은 특정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8-11],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및 가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사건 및 문화적 변화(예: 간통죄 폐지, SNS 및 모바일의 역기능 등)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간과된 것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른 나라들은 이른 시기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다(독일 1969년, 일본 1947년, 덴마크 1930년, 프랑스 1791년)[12,13].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혼외성행위 당사자들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14]. 간통죄 폐지를 두고 찬반논쟁이 치열하였을 때, 간통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sexual self-determ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기혼자들의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불륜의 증가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었다[14]. 간통죄 폐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기혼남녀의 혼외성인식 및 성규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기혼 남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NS를 통해 배우자 이외의 이성(異性)을 만나는 현상이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SNS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5]. 선행연구는 과도한 SNS 사용이 불륜과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15-17]. SNS 및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성간의 활발한 성적 교류가 가능하면서, 혼외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성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11,18-21]. ‘SNS 및 모바일을 이용한 이성간의 활발한 성적 교류’ 현상도 ‘간통죄 폐지’와 함께, ‘불륜’을 소재로 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비판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에서 초점을 둔 개인심리특성은 물론[5,6], 선행에서 간과했던 사회문화적 요인들(예:간통죄 폐지, SNS 및 모바일 역기능 등), 혼외성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부관계 요인들(예:결혼 만족정도, 부부의 성적 만족정도 등)[15,22,23], 그리고 혼외성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율법적 해석을 하는 ‘기독교 유무’와 같은 종교배경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13]. 부가하여,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 요인

을 탐색하는 연구가 특정 한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시대별 변화추이변화까지 파악해볼 수 있는 비교연구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륜 당사자들에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된 시기(2015년)와 수년 후의 변화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2 연구의 목적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륜 드라마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들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특성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추이를 밝히는데 있다.

## 2. 문헌검토

### 2.1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

‘불륜’(infidelity)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2,4,5]. ‘불륜’과 ‘혼외관계’, ‘외도’ 등의 용어들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적 행위는 불륜 혹은 혼외관계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지만[5], “육체적 성적 행위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사랑을 표현한 개념”[11]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24-26]. ‘불륜 드라마’의 조작적 정의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불륜’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이다. 불륜 드라마가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불륜을 부추기고 가정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불륜을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adverse effect)을 시사해준다[1].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social risk)이 있다고 해서, ‘불륜’을 드라마의 소재로 금지할 수는 없다. 불륜 드라마 시청자들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의식을 가진다면, 혼인가치를 훼손하고 불륜을 부추기는 등의 불륜 드라마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의 조작적 개념은 전술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불륜드라마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예: 불륜미화, 불륜을 부추김, 혼인가치 훼손, 자극적인 성적 묘사 등)에 기초한다[1].

### 2.2 자가지각, 정서적 소외, 혼외관계인식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가지각(self-awareness) 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외부대상(예: 다른 사람, 대중매체와 같은 환경) 및 내부대상(예: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외모 등과 같은 자아)에 집중한다”고 하였다[5,27,28]. 자가지각이 증가할수록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자기평가적인 대응도 증가할 수 있다[1,29]. 선행연구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기혼자들의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은 자가지각력을 매개(mediator)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6]. 정서적 성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가지각의 특성과 앞서 언급한 자가지각의 긍정적인 특성을 고려하면[5], 자가지각 수준이 높은 기혼 남녀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보다 더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낼 수 있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과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불륜’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혼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도 더 많이 가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이론적 근거(rationale)로 점화가설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11,30]. 점화가설이론은 “생각요소는 절(node)로 구성되어 있어, 그 경로를 통하여 방출활동을 하여, 연관된 생각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점화효과(priming) 및 전개활성화(spreading) 개념을 토대로 되었다[11].

정서적 소외감(emotional isolation)은 “현재 자신의 사회망에서 친밀성(intimacy) 및 애착감(attachment)의 결여”를 의미한다[31].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관계가 결여될 경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11]. 선행연구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친밀성이 결여된 기혼자들이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더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32,33]. 전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혼자들이 정서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소재로 다룬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해볼 수 있다.

### 2.3 부부관계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

Subbarayan과 Visvanathan은 정서적 성숙을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심리특성임을 강조하였다[34]. 정서적 성숙은 자기(self)와 자아(ego)의 작용에 의한 충동통제과정으로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판단력, 책임감과 같은 특성과 함께 다양한 긍정적 특성(지적 성숙, 정서적 이성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 등)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11,35-38].

정서적 성숙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기혼남녀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콘텐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불륜에 대한 지나친 미화’, ‘외도를 부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필요이상의 노골적 성적 묘사’ 등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5,39]. 정서적 성숙은 개인의 귀한 자질이자 중요한 개인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가정은 “개인 자원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자원 이론적 관점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40].

### 2.4 부부관계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 등은 혼외관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부관계(couple relationship) 관련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41,42]. 결혼생활 및 성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결혼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혹은 성생활에 불만족할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 2.5 ‘간통제 폐지’에 대한 인식,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에 미치는 영향

성(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성규범을 형성하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 process)는 특정 발달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적 사회화 과정은 성인기를 통해서도 지속되며[11,43,44],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변화되어진다. 성(sexuality)은 상호적, 역사적 힘의 산물로서 정의된다. 성은 사회관계와 무관하게 개인의 내부

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으로 다루는 본질주의와는 구별되게 된다[45]. 성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조직된다[45].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간통죄 폐지는 혼외성(extra-marital 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간통죄 폐지가 혼외관계를 부추기고 혼외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았다[14].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추후 평가도 중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혼외성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기혼자들의 혼외성관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기혼자들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혼외성문제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분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 기혼자일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본다.

사이버 공간(cyber space) 및 인터넷 공간은 새로운 지역사회(communitiy)개념으로 로 발전하고 있다[46]. Waskul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불륜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33]. 혼외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 성행동을 주요 콘텐츠로 다루는 음란물 매체인 사이버 공간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SNS를 통한 대인관계 경험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중장년층의 새로운 소통문화”로 자리잡고 있다[15]. 우리나라는 SNS 및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매우 활발하여, 이성과의 교류와 만남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SNS를 이용한 이성과의 활발한 성적 교류가 혼외정사(혼외관계)를 포함한 위험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SNS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15].

최근 연구들에서는 과도한 SNS사용이 불륜과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17]. 이러한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 2.6 생활환경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인식에 미치는 효과

혼외관계(불륜)가 빈번히 발생하는 불륜이 만연한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혼외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혼외관계의 만연성 정도가 기혼자들의 혼외관계수용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자율성, 정서적 소외감등)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32]. 혼외성에 대한 인식이 주변 환경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인관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한국사회에서[47], 주변의 지인들 사이에 불륜이 만연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경우, 불륜(혼외관계)과 같은 성적일탈로 인한 체면손상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문제의식도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불륜이 만연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혼자들의 경우, 불륜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이 감소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rationale)는, “개인의 반응은 개인의 욕구 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생태체계이론, 사회학습이론 및 사회인지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14,48].

## 2.7 성별, 연령, 교육, 경제수준 등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인식에 미치는 효과

선행연구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성별특성’, ‘학력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0,14,25,32,49-54]. 경제적 수준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및 행위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지만, 매우 오래 전의 연구결과이다[54]. 교육수준(학력)과 경제수준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경제수준’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서 기혼자들은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2. 기혼자들이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문제의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 유무에 영향을 주는 개인심리특성(정서적 소외, 자기지각) 섹슈얼리티 인식(혼외관계수용성,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환경적 특성(불륜 만연성, SNS 효과), 부부관계요인(결혼만족도, 성생활만족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 요인들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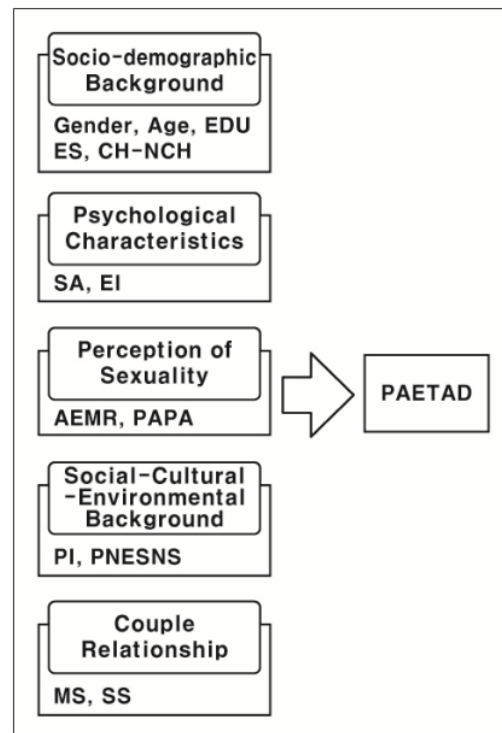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alysis

The Abbreviation of Variables (주요 변수들의 약어)

EDU: Education (교육), ES: Economic Status (재정상태)

CH-NCH: Christian Vs. Non Christian

SA: Self-Awareness, EI: Emotional Isolation

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혼외관계수용성)

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불륜 만연성)

PNESNS: Perception of Negative Effect of SNS(SNS의 부정적 효과)  
 MS: Marital Satisfaction(결혼만족), SS: Sexual Satisfaction(성적만족)  
 PAETAD: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인식)

###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data)는 약 4년 간격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이다. 조사응답자들은 인터넷 서베이업체의 유료패널(전국단위)에 등록된 사람들이며, 모두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차 설문조사는 간통죄가 폐지(2015. 2)된 2015년 12월에 실시하였고, 약 4년 뒤에 2차 설문조사(2019.10.7 -10.21)를 실시하였다. 4년 간격을 두고 2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후속연구를 위한 준비(연구 설계, 연구비 마련 등)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차, 2차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설문조사 업체가 등록된 유료 패널이다. 1차 혹은 2차 설문조사에만 참여한 패널도 있고, 두 설문조사(1차, 2차)에 모두 다 참여한 패널들도 있다. 1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402명(기혼남성 201명, 기혼여성 201명)이고, 2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604명(기혼남성 310명, 기혼여성 304명)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2세(1차), 44세(2차)이다. 1, 2차 설문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 3.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종속변수(1개), 독립변수(8개), 통제변수(5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1 종속변수: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PAETAD: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불륜의 낭만화, 혼인가치훼손, 자극적인 성적 묘사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이항 척도(0=문제 의식 없음, 1=문제 의식 있음)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 중에 3개를 발췌하여[1,5],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신뢰도(Cronbach값  $\alpha$  .687)를 확인한 후에 다시 이항 변수(0, 1)로 재코딩한 것이다. 5점 척도 평가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점수 4점 이상('그렇다', '아주 그렇다')인 경우('0')와 그렇지 않은 경우('1')를 구분하였다.

#### 3.3.2 '정서적 소외'(EI: Emotional Isolation)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11]. 이 척도는 Vincenzi와 Grabosky의 척도에서 일부 문항들을 발췌하여 구성한 것이다[31]. 3개 문항들("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나는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이다. Cronbach  $\alpha$  값은 .757.이다.

#### 3.3.3 '자기지각'(SA: Self-Awareness)

이경렬, 김정희, 김동원이 개발한 영성척도의 '자기지각' 하위척도를 재구성하여 선행연구자가 소개한 척도이다[5,55]. 척도의 문항내용(5개)은 대인관계, 일어난 일, 나의 생각 및 느낌, 육체적, 정신적 현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파악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5]. 5점 척도이며 Cronbach  $\alpha$  값은 .797이다.

#### 3.3.4 '혼외관계수용성'(AEM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 척도는 Thompson이 제시한 세가지 유형(육체형, 정서형, 육체·정서 혼합형)의 혼외관계를 토대로[56], 각 유형별 혼외관계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수용적인(혹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여러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11,26,32]. 5점 척도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  $\alpha$  값은 .803이다.

#### 3.3.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간통죄 폐지(2015년)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문항이다. 문항 내용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는 찬반논란이 크게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으므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통죄가 폐지된 해(1차 조사, 2015년)와 4년 뒤(2차 조사, 2019년)에 각각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3.3.6 '불륜 만연성'(PI:Pervasiveness of Infidelity)

의미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생활하는 주변에서 '불륜'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척도이다[32]. 척도의 문항(2개) 내용은 "내 주변에도 혼외성관계 경험자가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혼외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내 주변(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에도 있다)에도 있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에 불륜이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  $\alpha$ 값은 .644 이다.

### 3.3.7 'SNS의 부정적효과에 대한 인식'(PNESNS: Perceptions of the Negative Effect of SNS)

단항 문항 척도이다. "SNS 활용으로 외도가 더 빈번해지고 손쉬워지고 있다"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SNS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3.8 '결혼 만족'(MS: Marital Satisfaction) 및 '성적 만족'(Sexual Satisfaction)

이 두 척도는 '결혼생활' 혹은 '부부의 성생활'에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두 척도 모두 단 문항 척도이며,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 3.3.9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

'성별'(GENDER), '연령'(AGE), '교육수준'(EDU), '경제수준'(ES), '기독교유무'(CH-NCH) 성별(0=남성, 1=여성)은 이항 변수이다. '연령'은 만 연령을 파악한 후 세 분화(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재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원이상, '경제수준'은 5점 척도(1='아주 어렵다', 2='어려운 편', 3='보통 수준, 4='여유 있는 편', 5='아주 여유 있음')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기독교유무(0=비기독교인, 1=기독교인)는 이항 변수이다 (Table 2).

## 3.4 분석방법

주요 변수들의 빈도, 평균값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분석을 하였고, 종속변수인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를 결정짓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

인들(determinants)을 밝히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osmer와 Lemeshow의 적합도 검증(Goodness-of-Fit Test)에서,  $\chi^2$  값을 토대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도를 알 수 있는 통계량( $\chi^2$ )은 작을수록, 그리고 유의확률(P값)은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Wald 통계량( $\chi^2$ , P값)에 근거하여 검증하였다. 표준화계수, 로지스틱, 회귀계수, 승산비(odds ratio)를 함께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의 경우, 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각 개별 독립변인의 적절성을 주는 승산비(odds)를 토대로 검증하는 것에 더 목적을 가진다[57].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에 각 독립변수 1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승산(odd)의 증가배수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회귀식도 제시하였다[57].

## 4. 연구결과

### 4.1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

범주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종속변수1, 독립변수 8)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왜도범위는 -.656~.126로 절대값 2미만이었고, 첨도범위도 -1.038~-.165로 절대값 7미만으로 일변량 정규성(normality)이 충족되었다.

### 4.2 주요 변수들의 특성

종속변수('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와 다양한 영역(개인심리특성, 섹스얼리티 인식, 사회환경요인, 부부관계 등)에서 선정된 독립 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의 특성은 집단 1(402명, 2015년 설문조사 참여자)과 집단 2(604명, 2019년 설문조사 참여자)를 비교·분석하여 <Table 1>과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 4.2.1 집단 1과 집단 2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비교

1차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집단 1)과 2차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집단 2)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대

한 정보는 아래 <Table 1>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두 집단(집단1, 집단 2)의 성비, 연령,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크게 이질성이 없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Group1=402, Group2=604)

Demographic Background	Group 1 (year of 2015) N=402 persons	Group 2 (year of 2019) N=604 personas
Gender	males= 201 females=210	males=310 females=304
Age	25~39=176(43.3%) 40~49=152(37.8%) 50~59=62(15.4%) over 60=12(0.03%) mean(SD):42(8.538)	30'=181(29.4%) 40'=305(49.5%) 50'=128(20.8%) mean(SD):44.2(8.201)
EDU (education)	high school =81(20.9%) college=275(68.4%) graduate school =43(10.7%)	high school =78(12.75) college=490(79%) graduate school =46(7.5%)
ES (econmic status)	very bad=13(3.2%) bad=80(19.9%) average=241(60%) good=62(15.4%) very good 6(1.5%)	very bad=13(3.2%) bad=80(19.9%) average=241(60%) good=62(15.4%) very good 6(1.5%)
CH-NCH (Christian Vs. Non Christian)	Non Christian =254(65.9%) Christian=130(32.4%)	Non Christian =411(66.9%) Christian=196(31.9%)

#### 4.2.2 집단 1과 집단 2의 8개의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비교분석

'정서적 소외감'과 '자기지각(개인 심리특성 영역), '혼외관계수용성'과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섹슈얼리티 인식), '불륜 만연성', 'SNS의 부정적 효과'(사회환경적 특성), '결혼 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부부관계관련 요인) 등 8개의 관련 변인들의 집단 1(2015년)의 평균값과 집단 2(2019년)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Table 2>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전술한 8개의 주요 독립변수들 중에서 집단 1(1차 설문조사 응답자)과 집단 2(2차 설문조사 응답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은 '혼외관계수용성'(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과, '불륜 만연성'(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 이 두 변수뿐이었다. 나머지 6개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2가 집단 1에 비해서, 혼외관계를 더 수용하고, 주변에서의 불륜 만연성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통죄 폐지(2015년)는 찬반

Table 2. Means of Major Independent Variables: The Comparison between Group1 and Group2

Variables	Group 1		Group 2		t(p)
	Mean	SD	Mean	SD	
SA	3.778	.513	3.716	.538	1.833(.067)
EI	2.846	.7535	2.911	.773	-1.322(.187)
AEMR	2.251	1.078	2.625	.998	<b>-5.707(.000)</b>
PAPA	2.789	1.282	2.663	1.145	1.593(.111)
PI	2.586	.969	3.250	.897	<b>-11.178(.000)</b>
PNESNS	4.012	.813	4.041	.7729	- .559(.576)
MS	3.420	.907	3.43	.889	- .251(.802)
SS	3.120	.940	3.150	.925	- .455(.649)

- SA (Self-Awareness)
- EI (Emotional Isolation)
- 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
- 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 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
- PNESNS (Peception of the Negative Effect of SNS MS(Marital Sastifaction)
- SS (Sexual Satisfaction)

논란이 크게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올바른 결정(혹은 잘못된 결정)인지 여부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약 4년 뒤인 2차 설문조사 결과(M=2.789)는 간통죄가 폐지된 해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M=2.663)에 비해 척도 점수 자체는 약간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1차, 2차 설문조사 모두, 해당 척도(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간통죄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척도 점수 4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통죄 폐지가 일반인들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4.2.3 집단1과 집단2의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비교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의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집단 1(평균=3.930, SD=.8348, 5점 척도)에 비해 집단 2(평균=3.821, SD=.8379, 5점 척도)가 더 유의하게 낮았고, 1차, 2차 조사결과 모두 불륜 드라마 콘텐츠 역기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척도 점수(4점 이상)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4점 미만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류하여 이항변수(0,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



단 1과 집단 2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Table 3 참조). 1차 조사(2015년)에서는 67%의 응답자들이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 역기능에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2차 조사(2019년)에는 47% 정도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시간이 흐를수록 불륜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생각은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불륜을 지나치게 낭만화’ 한다거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 문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인가치 훼손’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서는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불륜 드라마 콘텐츠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생각을 하는 기혼자들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불륜 드라마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문제시하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기혼자들에게 불륜 드라마가 성적 배타성(sexual exclusiveness)이 요구되는 ‘혼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Means and Frequency of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PAETAD)

Variables	Group 1		Group 2		t(p)
	Mean	SD	Mean	SD	
PAETAD (5point scale)	3.929	.685	3.759	.648	<b>3.992(.000)</b>
4 Sub Scales					
RA(Romanticizing an affair)	3.973	.806	3.865	.833	<b>2.057(.040)</b>
DMV(Damaging Marriage Value)	3.920	.8348	3.821	.8379	1.856(.064)
OS(Obvious Scriptease)	3.893	.842	3.591	.902	<b>5.431(.000)</b>
PAETAD(0, 1) (Binary Variable)					
	.622	.485	.471	.500	<b>4.799(.000)</b>
'0' group: N=477(46.7%) '1' group: N=539(53.1%)					

#### 4.3 불륜 드라마 콘텐츠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집단 1, 2)

TV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하 ‘PAETAD’)을 가질 가능성(유무)을 각 변인들의 승산비(odds)를 토대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참여자들(2015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해로운 영향을 인식할 가능성(문

제인식 유무)을 파악할 수 관련 변인들의 승산비(odds)를 보면, 연령대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1.043배 증가하고, 자기지각(SA)이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686배 증가하고, SNS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PNESNS)하는 정도가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6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 참여자들(2019년)의 경우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034배 증가하고, 무교인보다 기독교인일 경우 1.493배 증가하고, 자기지각(SA)이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528배 증가하고, 간통죄가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인식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59배씩 감소하고, SNS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PNESNS)하는 정도가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3.043배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 자기지각,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선정된 변수들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PNESNS)이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을 갖게 할 가능성은 1차 조사(odds, 1.644)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약 2배 정도 증가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조사를 통해,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4개 요인들, 즉 ‘기독교 유무’, ‘정서적 소외감’, ‘혼외관계인식’, 그리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등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전술한 4개 요인들의 승산비(odd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경우, 1.493배 증가하고, 정서적 소외감이 한 단계 증가함에 따라 1.576배 증가하고, 혼외관계수용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90배 감소하고, 간통죄가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인식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59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5. 결론 및 제언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2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 기혼자들이 가진 문제의식 수준(1차, M=3.930; 2차, M=3.821)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Table 2),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생

각은 점차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기혼자들(1차 조사, 67%; 2차 조사, 47%)의 비율은 훨씬 감소하였다(연구문제 1). 특히 불륜 드라마가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문제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한 비판은 적어졌다. 그러나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의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3).

둘째, 불륜 콘텐츠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성별, 연령, 교육, 재정상태, 기독교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을 더 문제시하는 현상은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나타났고, 2차 조사에서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독교 유무'가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추가로 선정되었다(연구문제 2). 기독교인일 경우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Table 4).

셋째, TV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이 문제의식 유무에 영향을 주는 개인심리 특성(정서적 소외, 자기지각) 섹슈얼리티 인식(혼외관계 수용성,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불륜 만연성, SNS 부정적 효과), 그리고 부부관계(결혼만족도, 성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기혼자들의 '자기

지각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SNS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식할수록,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현상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2차 조사 분석에서는 앞서 1차 조사에서 밝힌 '연령', '자기지각',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할수록,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인 경우, 불륜 TV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4)(연구문제 3).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자들이 불륜 드라마에서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를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현상은 감소하였다. 불륜을 지나치게 낭만화 또는 미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에서 연출된 내용과 현실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이 시청자들에게서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시청자들이 불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미디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Table 4. Determinants of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 The Comparison between G1 and G2

Variables	Group 1 (Year of 2015)					Group 2 (Year of 2019)				
	B	SE	Wals	P.	Exp(B) Odd Ratio	B	SE	Wals	P.	Exp(B) Odd Ratio
Gender	.017	.243	.005	.943	1.017	-.181	.210	.743	.389	.834
Age	.042	.015	8.386	.004	<b>1.043</b>	.034	.015	4.985	.026	<b>1.034</b>
EDU	.000	.126	.000	.999	1.000	.036	.126	.081	.777	1.037
ES	-.068	.164	.174	.677	.934	-.043	.147	.084	.772	.958
CH-NCH	-.244	.240	1.039	.308	.783	.401	.199	4.053	.044	<b>1.493</b>
SA	.523	.234	5.002	.025	<b>1.686</b>	.424	.184	5.301	.021	<b>1.528</b>
EI	.247	.172	3.123	.077	1.356	.455	.136	11.212	.001	<b>1.576</b>
AEMR	.047	.131	.130	.719	.954	-.256	.112	5.290	.021	<b>.774</b>
PAPA	-.183	.103	3.154	.076	.833	-.230	.093	6.031	.014	<b>.795</b>
PI	-.007	.127	.003	.955	.993	-.049	.115	.182	.670	.952
PNESNS	.497	.142	12.181	.000	<b>1.644</b>	1.113	.148	56.470	.000	<b>3.043</b>
MS	.190	.167	1.284	.257	1.209	.143	.143	.997	.319	1.154
SS	.019	.154	-.015	.904	1.019	-.044	.133	.110	.714	.957
	Model $\chi^2=44.892$ , $df=146$ , $P < .001$ Hosmer & Lemeshow test $\chi^2=8.752$ , $p < .364$ -2log Likelihood 488,265, Cox & Snell $R^2$ .106, Nagelkerke $R^2$ .144					Model $\chi^2=141.617$ , $df=13$ , $P < .001$ Hosmer & Lemeshow test $\chi^2=8.867$ , $p < .375$ -2log Likelihood 707,456, Cox Snell $R^2$ .206, Nagelkerke $R^2$ .275				

야 할 것이다[7]. 기혼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실천적 함의(practical implication)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회사가 적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학계 및 방송계가 협력하여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5,7].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관, 지역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륜 드라마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덜 문제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성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용인(tolerance)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영화 및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연인들 간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및 성적 표현에 많이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불륜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 덜 비판적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불륜 드라마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노골적 성적 묘사’와 ‘불륜의 지나친 미화’와 같은 불륜 드라마의 문제점에 대해서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결과가 1차 조사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하게 된다. ‘노골적 성적 묘사’ 그리고 ‘불륜의 지나친 미화’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이 감소되고 있지만,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은 감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적 배타성’(sexual exclusiveness)이 요구되는 ‘혼인가치’가 기혼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성규범(sexual norm)으로 내면화 되어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기혼자들의 인식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 현상은, 기혼자들이 간통죄의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1차 조사(M=2.789)와 2차 조사(M=2.663)를 비교하여 파악해본 결과, 간통죄 폐지에 대한 기혼자들의 평가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사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Table 2).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 혼외관계를 맺는 ‘불륜’은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뒷받침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서 성적 배타성이 요구되는 ‘혼인가치’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sexuality)에 대한 가치와 규범들 간의 충돌은 특히 기혼자들에게 성적 긴

장과 갈등을 야기시켜 부부관계 및 결혼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러한 사회문화적 성적 이슈를 대처해야 할지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사회 문화적 변화가 반영된 건강한 성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혼자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M=2.625)을 1차 조사결과(M=2.251)와 비교해본 결과,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지 않는 것은 상충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더 허용적일 경우, 혼외관계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적 자율성(self-autonomy)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혼외관계에 대해 좀 더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가치를 훼손한 불륜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싼 대가(cost)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평성’(fairness)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불륜 드라마 콘텐츠로 야기되는 역기능들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요인(correlates)을 분석을 위해서 선정되었던 사회문화적 요인들, 즉 ‘혼외관계 만연성’과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1차 조사결과(M=2.586)와 2차 조사결과(M=3.250)를 비교해보면, ‘혼외관계 만연성’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기혼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혼외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하는 현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 혼외관계가 만연하고 혼외관계문제에 많이 노출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점차 둔감해질 수 있어, 그 결과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SNS를 이용하여 쉽게 이성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이 혼외정사(혼외관계)를 포함한 위험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은 변화가 없었다. 1차 조사 결과(M=4.012)에서도 2차 조사 결과(M=4.041)와 같이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았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약 2배 가량 크게 증가하여 주목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불륜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피력했던 Waskul의 지적을 상기하게 된다[33]. SNS와 같은 가상공간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communitiy)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 특유의 익명성과 폐쇄성 덕분에 과거보다는 손쉽게 이성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도 SNS의 메신저 기능으로 소통을 시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 대면으로 시작하지 않는 관계이기에 기혼자로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이 적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SNS 활용으로 외도가 더 빈번해지고 손쉬워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1차와 2차 결과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실질적 SNS이용 행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SNS로 인하여 혼외관계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해당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게시물 등에서 불특정 이성을 상대로 혼외관계 대상을 물색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지만 개개인의 신고 등에 의존할 뿐 빅테크기업으로서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screening system)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성규범에 위배되는 이러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작업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의 특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회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대상자들(N=402)과 2차 조사대상자들(N=604)은 동일 설문조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패널들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중복적으로 응답한 패널들도 많지만, 1차 조사집단과 2차 조사집단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약 4년의 시차(1차 조사, 2015년; 2차 조사, 2019년)를 두고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

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은 어떠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연구이다. 1차 조사 응답자들과 2차 조사 응답자들은 성비(sex ratio),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크게 이질성이 없어 두 집단 간의 비교분석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1, 2차 조사에 그치지 않고, 추후 조사(follow-up study)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차 조사가 이어져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시차를 두고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단위의 변화추이 까지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종단연구까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의 변화추이를 밝힘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들인 기혼자들의 성별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뿐이었고, ‘성별’은 ‘학력’, ‘경제수준’, ‘기독교유무’ 등과 함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4).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성별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기혼자들의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없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7].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요인들의 특성에서 성별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각각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H. J. Lee, "A Study on Problems in TV Drama Contents Containing Sexual Socialization: Focusing on Adultery Content and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8, pp.63-74, 2021.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1.12.15.8.63>
- [2] J. H.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Korean Society's Values and TV Melodrama: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Sand Castle' and 'Lovers'*,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Seoul, Korea, 1996.
- [3] Y. J. Won, "Society read through genre changes: Focusing on the popular dramas <Sandcastle> and <Lovers>", *Media and Society*, Vol.16, pp.100-133, 1997.
- [4] J. Y.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 Based on the 3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of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eoul, Korea, 2016.
- [5] H. J. Lee,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Self-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Individuals' Criticism of TV drama regarding Infide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 21, No.3, pp.115-123,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2.115>
- [6] H. J. Lee, W. J. Lee, "The Effect of Emotional Maturity on the Critical Mind of Married Men and Women on TV Affair Drama Contents - Focusing o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Awareness and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0, pp.646-656,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0.646>
- [7] H. J. Lee, "The Effects of Emotional Isolation and Media on Married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Ag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6, No.8, pp.29-43, 2022.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2.12.16.8.29>
- [8] K. L. L'Engle, C. Jackson, "Socialization influences on early adolescents' cognitive susceptibility and transition to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18, No.2, pp.353-378, 2008.  
DOI: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8.00563.x>
- [9] S. S. Shin, "The Dilemma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position of Meaning of Sexual Violence", *Women and Society*, Vol.13, pp.6-43, 2001.
- [10] I. H. Hahm, "The Gender Gap Reflected in the Sexual Relations of the Korean Family", *Women's Studies Review*, Vol.29, No. 2, pp.175-210, 2012.  
DOI: <https://doi.org/10.18341/wsr.2012.29.2.175>
- [11] H. J. Lee,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ir Emotional Isolation and Emotional Maturit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106, pp.171-206, 2021.  
DOI: <https://doi.org/10.46407/kici.2021.04.106.171>
- [12] C. G. Park,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to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Kyung Hee Law Journal*, Vol.45, No.2, pp.41-69, 2010.
- [13] H. J. Lee, W. J. Lee,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Faith & Scholarship*, Vol.27, No.3, pp.85-116, 2022.  
DOI: <https://doi.org/10.30806/fs.27.3.202209.85>
- [14] H. J. Lee, "The mediation effect of married people's sexu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turity and perceptions of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No.31, No.1, pp.41-87, 2021.  
DOI: <https://doi.org/10.22772/pnujws.31.1.202104.41>
- [15] S. M. Choi, "The A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Smartphone Addiction and Attitude toward infidelity on Internet Infidelity: A Mediated Moderation Model",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0, No.1, pp.55-75, 2015.  
DOI: <https://doi.org/10.18205/kpa.2015.20.1.003>
- [16] R. B. Clayton, A. Nagurney, J. R. Smith, "Cheating, breakup, and divorce: Is Facebook use to blam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6, No.10, 717-720, 2013.  
DOI: <https://doi.org/10.1089/cyber.2012.0424>
- [17] R. B. Clayton, "The third wheel: The impact of twitter use on relationship infidelity and divorc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7, No.7, pp.425-430, 2014.  
DOI: <https://doi.org/10.1089/cyber.2013.0570>
- [18] V. H. Lo, R. Wei,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9, No.2, pp.221-237, 2005.  
DOI: [https://doi.org/10.1207/s15506878jobjem4902\\_5](https://doi.org/10.1207/s15506878jobjem4902_5)
- [19] V. C. Yoder, T. B. VIRDEN III, K. Amin, "Internet pornography and loneliness: An associa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Vol.12, No.1, pp.19-44, 2005.  
DOI: <https://doi.org/10.1080/10720160590933653>
- [20] J. Peter, P. M.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6, pp.639-660,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60-2466.2006.00313.x>
- [21] E. S. Cho,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0, pp.291-314, 2013.

- [22] S. P. Glass, T. L. Wright, "Justifications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Journal of sex Research*, Vol.29, No.3, pp.361-387, 1992.  
DOI: <https://doi.org/10.1080/00224499209551654>
- [23] J. Treas, D. Giesen,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No.1, pp.48-60, 2000.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0048.x>
- [24] W. F. Harley Jr.,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P.240, Revell Co, 2011. ISBN: 0800719387, 9780800719388
- [25] Y. H. Lee & Y. S. Yi, "A Study on the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6, No.3, pp.523-533, 2007.
- [26] S. J. Shi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3, pp.199-211,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199>
- [27] Duval, S., & Wicklund, R. A.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p.238, NY: Academic Press, 1972. ISBN: 0122256506
- [28] P. J. Silvia, T. S. Duval, "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 Recent progress and enduring proble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5, No.3, pp.230-242, 2001.  
DOI: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O503\\_4](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O503_4)
- [29] J. G. Hull, "A self-awareness mod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90, No.6, pp.586-600,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90.6.586>
- [30] L. Berkowitz,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410-427,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410>
- [31] H. Vincenzi, F. Grabosky,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 No.2, pp.257, 1987.
- [32] W. J. Le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6, pp.682-694,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6.682>
- [33] D. D. Waskul, *Net SEXXX: Reading on Sex, Pornography, and Internet*, New York: Peter Lang, 2004.
- [34] K. Subbarayan, G. Visvanathan, "A study on emotional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Recent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3, No.1, pp.153-155, 2011. ISSN: 2076-5061
- [35] Y. O. Nam, S. J. Le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3, pp.185-212, 2002.
- [36] M. I. Choi,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KJICS)*, Vol.53, No.2, pp.49-69, 2009.
- [37] D. G. Dean, "Romanticism and emotional maturity: A further exploration", *Social Forces*, Vol.42, No.3, pp.298-303, 1964.  
DOI: <https://doi.org/10.1093/sf/42.3.298>
- [38] W. S. Smitson, "The Meaning of Emotional Maturity", *MENTAL HYG*, Vol.58, No.1, pp.9-11, 1974.
- [39] J. Y. Kim, D. G.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30, No.6, pp.39-78, 2016.
- [40] H. J. Song,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Job Demand-Resource Theor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inter Conference Papers*, pp.2381-2401, 2017.
- [41] Y. S. Lee, K. R. Park, G. Y. Jeon, *Understanding Extramarital Relationships*, Seoul: HakJiSa, 2000.
- [42] M. H. Kong,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7, No.2, pp.1-20, 2002.
- [43] J. H. Gagnon, "The explicit and implicit use of the scripting perspective in sex research",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Vol.1, No.1, pp. 1-43, 1990
- [44] M. A. Longmore,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udy of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Vol.35, No.1, pp.44-57, 1998.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9809551916>
- [45] E. S. Kim, "Popular Culture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s Sexual Subjects",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Vol.14, No.1, pp.41-77, 1998.
- [46] K. E. Lee, D. H. Jang, H. Y. Kim, D. W. Moon, M. Lee, *Community Welfare Theory*, Seoul: HakJiSa, 2016.
- [47] K. B. Kim, S. U. Kim, "Is the Whistle Blowing Behavior in Organization Just or Cooperativ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0, No.4, pp.47-59, 2006.
- [48]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49] J. H. Byun, *A study on the sex of couples: focusing on affair*, Master the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ism, Seoul, Korea, 2002.
- [50] S. B. Jang, M. K. Lee,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3, pp.339-346, 2003.

- [51] Y. S. Yi, Y. H. Lee,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7, No.4, pp.6310-638, 2008.
- [52] D. Yucel,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behaviours and attitudes among married individual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Vol.7, No.2, pp.317-334, 2018.  
DOI: <https://doi.org/10.1332/204674316X14758536407188>
- [53] M. W. Wiederman,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Vol.34, No.2, pp.167-174, 1997.  
DOI: <https://doi.org/10.1080/00224499709551881>
- [54] Y. H. Sim, Research on the reality and consciousness of adulter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
- [55] G. Y. Lee, J. H. Kim, D. W. Kim,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11-728, 2003.
- [56] A. P. Thompson,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1, pp.35-42, 1984.  
DOI: <https://doi.org/10.2307/351861>
- [57] S. J. Shin, S. H. Jung, "The Effects of School Environment Perceived by Teacher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on Peer Victimization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19, pp.141-172, 2010.

---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영상제작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미디어분석, 영상산업